말씀의 이삭

저로서는 못 오를 바위 위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정희선 카타리나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지난해 9월 저는 명동대성당 갤러리 1898에서 '북촌 한옥'을 주제로 개인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이 북촌 한옥마을을 찾고 북촌의 아름다움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동네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가 어떤 철학으로 이런 동네를 개발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20년에서 1930년대에 걸쳐 북촌에 한옥 단지를 일궈 내신 분은 바로 저의 할아버지 정세권이십니다. 당시 일제의 압박을 물리치고 경성의 한복판에 우리의 긍지를 한옥으로 뿌리박아 놓으셨다는 점이 놀라울 뿐 아니라, 그 집들이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서민들을 위한 30평 내외 소규모의 실용적 한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의 앞서가신 애국애족의 철학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분은 한옥 건축을 통해서 일구신 부를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신간회, 조선어학회와 조선물산장려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 후원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할아버지의 업적을 되새기며 저 또한 후손으로서 북촌 한옥을 주제로 사진을 찍어 할아버지의 높은 뜻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후손으로서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절실한 책임감 때문에 저는 덜컥 전시장에 대관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전시의 준비는 덜 된 채 전시 날짜부터 못 박아놓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게 두려움이 덮쳐 왔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재로 잡아 어떻게 촬영을 할지 막연하였습니다. 더구나 북촌은 수많은 사람이 방문을 하고 사진을 찍어온 곳인데 어떻게 남다른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주님께 의탁하는 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로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밤마다 묵주기도 안에서 시편의 구절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총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할아버지와 문답하면서 북촌의 골목길을 헤매던 어느 날, 저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함께 할아버지의 건축 철학과 가치관을 잘 드러내는 지붕과 하늘의 조형적 형태에 시선이 꽂히게 되었고, 그것을 사진예술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갤러리 1898에서의 전시는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었고, 그 후 북촌 소재 갤러리 한옥에서 초대전을 여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어찌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100년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하셨던 저의 할아버지 정세권 요아킴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손녀의 노력을 흐뭇하게 받아 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금육제? 금육재?

금육(육식을 피하는 관습)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만 하다가 매주 금요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교회법 보완 규정(2002년 6월25일 사도좌 승인)에 따르면,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재(齋)를 지킴으로 절약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